

# 대세에 순응하지 말고 독창적으로 생각하라

##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지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업의 성패(成敗)가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지난 2003년 대기권 진입 도중 폭발한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사고는 미 항공우주국(NASA) 조직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애덤 그랜트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가 최근 펴낸 '오리지널스'(Originals)는 개인과 조직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독창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르며,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로 지칭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특정한 분야내에서 비교적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흔히 스티브 잡스나 마틴 루터 킹, 에이버리브라운 링컨 등 세상을 바꾼 독창적 리더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이라는 통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우리처럼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억지로 책임을 떠맡았으며, 마감에 달려서야 겨우 완성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낙담하지 않았으며, 어떻게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성을 발휘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독창성만으로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지만 '참신함'에 '익숙함'을 더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디즈니랜드 제작진은 기존 '백설공주' 같은 동화로 흥행작을 만들어온 관행을 깨고 새롭게 세익스피어의 '햄릿'과 연결한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을 만들어 1994년 최고 수익을 거뒀다.

와튼스쿨(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이던 학생 4명이 지난 2010년 만든 기업 '와비 파커'(Warby Parker)는 온라인을 통해 안경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한다는 기발한 발상으로 창업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반대 경우도 있다. 독창적인 폴라로이드 카메라(즉석 카메라)를 발명한 에드윈 랜드는 타 업체보다 앞선 디지털 영상기술을 개발하고도 디카 출시를 고려하지 않아 디지털 사진의 선구자가 될 기회를 차버렸다. 또 혁명적인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를 개발한 딘 카넬 역시 예상과 달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자동평형 기능을 갖춘 개인용 이동수단 '세그웨이'(Segway). 발명자 딘 카넬은 창의적인 발명품을 시장성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실행력이 부족했다.

지 못했다.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남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은 '집단 사고'의 결과였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사고 역시 NASA 조직문화가 공개적인 비판과 이의제기를 허락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색다른 생각을 장려하는 기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비판적인 생각과 반론을 제기하는

'악마의 변호인'을 두는 것이다. 탄광내에 유독가스가 차 있는지를 탐지하기 위해 들여보냈던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이다.

책 말미에는 개인과 지도자의 잠재된 독창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기존의 체제에 의문을 던져라 등 제시된 방법론은 창의성 실현에 용기를 낸 독자들의 몫이다.

〈한국경제·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법륜 스님의 행복=법륜 스님의 행복 안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115개 도시의 강연장과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 답변 중 가장 많은 공감과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내용을 엄선해 엮었다. 사느 게 바쁘다거나 직면한 현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해왔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까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을 들려준다.

〈나무의마음·1만4000원〉

▲평화 오디세이=전직 총리·장·차관급 인사, 국회의원, 교수, 언론인, 시인, 소설가, 음악인, 의사, NGO 운동가까지... 직업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복과 동시에 분단 70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32인은 압록에서 두만까지 북중 접경지대 1400km를 다녔다. 그리고 버스에서, 압록강의 배 위에서, 끊어진 다리 위에서 진행된 토론과 세미나, 이들이 도출해낸 화해와 협력의 통일론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메디치·2만원〉

▲러브 레플리카=소설가 윤이형의 세 번째 소설집.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총 8편의 수록작 중에는 제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 '룬의 여행', 제6회 젊은작가상과 제5회 문지문학상 수상작 '루카' 등 일찍이 작가의 탁월함을 인정받은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작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포착되는 미묘한 순간들, 인간 내면의 사소한 변화들을 따라가보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몰두하고 있다.

〈문학동네·1만3500원〉  
▲교회 예술과 건축=그리스도교 회화



종교 이상의 역할을 해왔던 그리스도교를 예술적 관점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어떻게 늙을까=영국의 전설적인 편집자 다이애나 애실이 90세에 쓴 노년과 삶에 관한 책. 저자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솔직한 태도와 세월이 단련된 예리한 지성으로 우리에게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늙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이야기한다. 50년 가까이 편집자로 일하며 만났던 인생의 책과 남자들, 노년에 느끼는 기쁨과 고통, 생의 마지막까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피할 수 없음에 대해 위축되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 “소설이 재밌다고? ...내가 재미있지 않으면 못쓰는 걸”

##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소설가 박완서 대담집

지난 22일은 “죽는 날까지 현역 작가로 남고 싶다”했던 박완서 작가(1931~2011)가 세상을 떠난 지 5주기가 되는 날이다. '미망',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등 수많은 소설을 통해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했던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가슴에 새길 말들을 많이 남겼다.

고인의 생생한 육성을 담은 대담집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이 나왔다. 후배 문인과 문학평론가들이 그녀를 만나 나눈 이야기들이다.

책에 실린 인터뷰는 모두 10편이다.



책에는 박완서의 소설에 등장할 것만 같은 서울 보문동 한옥집에서 이뤄진 김승희 시인과의 대담을 시작으로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재봉 한겨레 선임기자, 김혜리 씨네21 편집위원, 신형철·박해경 문학평론가, 소설가 김연수·정이현, 시인 장석남과의 인터뷰가 실렸다. 간베를 할 때마다 사늘한 말투로 “행복하자!” 하던, ‘사

한데 따뜻한'이로 고인을 기억하는 이병률 시인은 5주기에 부치는 글을 새롭게 썼다.

대담집에는 소설을 쓰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가족과의 이야기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사람다움을 위한 다양한 회초리'(김승희), '상처가 아물기 전에 딱지를 뜯어내며 써야 하는 소설'(장석남), '바스라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조선희),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최재봉) 등 각 대담의 제목이 바로 작가의 초상이기도 하다.

“선생님, 소설 하나 하나가 다 재미있어요.” 하자 고인은 “나는 쓰면서 내가 재미있지 않으면 못 쓰는 걸”하고 답했다. “문학이 고통의 다른 이름이라고만 여겨왔고, 낯은 빨랫감 쥐어짜듯 영혼을

사정 없이 비틀어 짜려고만 들었던” 정이현 작가는 이 말에 만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마지막 사람다움을 짓밟는 일에는 오기를 부려야 한다.(중략), 요즘 같은 시절의 이상적인 사람은 부끄러움과 오기를 다 갖춘 사람이다”, “집이라는 게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듯,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웃들의 삶속에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그가 육성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의미 깊다.

“당신 이름이 두르고 있는 어떤 권위에도 휘둘리지 않고 선생님은 그저 견고 계신다” 소설가 박완서와 딱 어울리는 말이다. 〈달·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 책

▲대통령이 된 꼬마 아이들=조지 워싱턴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외모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등의 이야기는 그들과 우리의 어린 시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디셋·1만2000원〉

▲토끼 인형 배벗 구하기=토끼 인형 배벗이 자신을 돌보는 두 아이와 함께 괴물들의 손아귀에서 용케 빠져나오기까지 하룻동안에 벌어진 일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작품.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리디아 몽크 작품으로 자신의 장난감을 잘 챙기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도 넉넉히 전해 준다. 〈상상스쿨·1만2000원〉

▲나무 나들이도감=한 손에 딱 쥐고 산, 들, 바다로 들고 다니는 세밀화 나들이



도감 시리즈. 주머니에 속 들어가서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자말과 외래어를 쓰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썼다. 나무, 갯벌, 바닷물고기 나들이도감이 먼저 나왔다. 〈보리·1만2000원〉

▲어린이를 위한 노벨평화상 속 세계사 100=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 노벨 평화상의 의미와 가치, 모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통해 근현대 세계의 역사까지 살펴본다. 책을 통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삶과 업적과 함께 그들이 활동한 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이케이북·1만5000원〉

##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음, 배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 돈 되는, 근린상가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